

## 무용과 삶: 홀로추는 춤

The Life of a Dancer

홍예주(Hong, YeJu)\*

손인영(2021). 홀로추는 춤. 안나프르나

### I. 들어가며

예술이란 미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창조된 형태(육완순 역, 1985, p.13)로 사람의 모든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며 예술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해석하여 삶의 전망을 밝히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오종우, 2015, p.75)이다. 예술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마음과 마음을 닿게 하면서 인간과 삶을 그려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소통 수단으로 시간 속에서 인간과 늘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예술 중 무용은 무용인에게 있어 무용 하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세월(책, p.7)과 함께 외로운 삶을 살게도 하지만 동시에 하염없는 사랑과 아름다움, 충만함, 자부심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연구자도 9세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운 좋게도 이름만 말해도 알 수 있는 훌륭한 스승님으로부터 한국 춤의 멋과 향기를 가득 담아가면서 그 몸짓을 배우며 '춤을 추다 무대에서 장렬하게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나의 전부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많은 고민과 눈물을 삼키게 한 것 또한 무용이었다.

삶은...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 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유재하-가리워진 길)(최종엽, 2021, p.17)인거 같다. 저자는 인생에 먹구름이 스쳐 지나갔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멍멍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너무 어두워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마음둘 곳이 없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책, p.5)고 한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교수, root8905@jejunu.ac.kr

홀로 추는 춤은 마음의 흐름이 몸으로 표출되어 춤이 되듯이 몸에서 흐르는 것들을 글로 표현(책, p.7)한 책으로 춤을 통해 삶을 배우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춤꾼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땅에서 춤 춘다는 것은 외로움과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책, p.7)는 무용가의 현실과 함께.

## II. 본론

나의 삶에서 저자는 춤꾼으로 사는 삶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다시 살아도 춤을 선택할 것이다(책, p.20)라고 하고 있다. 참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다. 무용은 나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예술로 결코 쉽게 허락되지 않는 몸짓에 연속성을 녹여내야 하는...그래서 호락 호락하지 않는... 그래도 결국 무용은 찬란한 빛, 동경이다. 연구자 뿐만 아니라 많은 무용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저자는 시각을 전환하여 삶을 즐겁게 하는 예술에서는 맛과 독창성으로 승패가 갈리는 요리를 삶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로 제시하면서 음식은 모든 감각이 총 동원되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있다. 접시는 무대를 연상시키며, 음식이 담긴 모습은 무용의 구성과 닮아있고 재료의 질감은 마치 감성이 서로 다른 무용수들을 보는 것 같다(책, p.51)고 하면서 미각예술이란 음악이나 춤의 감각을 능가하는 예술의 한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책, p.52)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음식의 값은 맛뿐만 아니라 요리사의 창의력, 인테리어, 서비스 등이 고려되어 매겨지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책, p.55)되는데, 춤 작품 제작에도 음악적 지식, 미술적 감각, 디자인, 기획, 움직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총 망라(책, p.56)되므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직업에서는 서른을 넘기면서 무용수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 무용가의 길을 선택(책, p.70)하는 저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공연하는 - 춤꾼이라면 한 두 번 씩은 해보았을 만한 -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단 무용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고민은 '삶의 허기를 춤으로 채우고... 기약 없이 춤만 주었어... 굶어죽어도 춤은 추어야겠기에...' 등(유인화, 2008, p.14, p.13) 저자만이 아닌 이 땅에서 춤추어 온, 춤추고 있는 무용가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책에서도 어렵지 않게 춤과 함께하는 삶은 녹록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고 코에 힘이 들어가면 무리를 하게 된다. 늘 그렇게 살았다. 무리하면서...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저자는 세상의 일이란 것이 빨리 간다고 경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간다고 잘못 사는 것도 아니다...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고 계획을 세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이란 것은 그리 멋지거나 위대하지 않다. 길거리의 풀 한포기요, 돌맹이 같은게 우리네 인생이다(책, p.6)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무용의 이해에서는 일반적인 글들로 무용이 이해를 높이며 라반의 에포트(effort) 중 특히, 에너지는 감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움직임은 쉽지 않아 감정폭발로 지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젊은 무용수는 에너지가 강하고 나이든 무용수는 그들이 뿜

어내는 에너지를 따라가기 어렵다(책, p.171)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춤꾼과 군무를 추면서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준다.

나이를 먹으면서 춤 추고 싶은 욕심이 많아져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젊은 무용수들보다 내가 춤을 잘 춘다고 생각했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춘 후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친한 친구가 ‘가능하면 군무는 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나는 기분이 나빴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하니, ‘템포가 맞지 않아 눈에 거슬렀다’고 하였다(책, p.145). 안타깝게도 춤꾼들이 잊지 말아야 할 얘기다.

그러나 다행이 나이든 무용수는 힘이 아닌 노련함으로 춤을 춘다(책, p.173).

춤의 지면에서는 몸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하여 꾸준한 연습으로 대부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몸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책, p.226)고 하였다. 삶의 진리다.

이 중, 무용수가 되는 길에서는 무용과 관련된 여러 길들을 제시해주며 춤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맞닿아 있어 무궁무진한 길로의 가능성과 함께 더 나아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책, p.235) 힘을 북돋우고 있다. 그러나 무용수가 아름다운 나이 30...춤을 직업으로...그리고 들뜬 같은 삶-독립무용가(책, p.257). 아무리 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힘들고 초초하다. 수많은 희열과 좌절을 반복하고 들뜬 같은 삶은 일상이 되면서(책, p.264) 재능있는 무용수는 결국 무용복을 벗는다(책, p.271). 참 답답한 현실이다.

이러한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도 접었고, 춤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도 버렸다(책, p.6)’. 관계와 감동에서 저자는 인생의 경험, 춤에 대한 갈망, 시간에 대한 비움으로 춤추며 사는 삶, 작품과 인내의 관계, 저자의 스승,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가들을 만나게 해주고 있다.

특히, 작품과 인내의 관계 속에서 긴 시간 춤추며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줘, 그럼 아주 독특한 결과가 나올 거야(책, p.115)’- 성급함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무용수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책, p.116)’- 끊임 없는 신뢰와 지지. 그리고 작품을 몇 개 만들고 안무가 뭘지 대략 이해할 때쯤 터득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비로소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집중과 함께(책, p.116).

또한 창작작품을 위한 움직임이나 소스는 끝없는 실험을 통해 운 좋게도 만들어지지만 이런 운은 늘 있는 것은 아니며 창작작품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시 파고드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며 특히, 요행을 바라지 않고 끝없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책, p.116)고 하였다. 이는 비단 창작작품, 창작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와 삶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 또한 창작활동의 과정과 같다.

### III. 나가며

스스로 나아가는 이유를 정해야 하는 나이에 접어들 시점에 몇몇 책들이 흔들리는 시간과 공허한 마음 삶의 향기로 채워주며 나를 달래고 있을 즈음 홀로 추는 춤은 춤으로만 가득했던 지나간 나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였다.

춤도 학문의 길도 어느 것 하나 쉬운거 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 이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만큼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없었던거 같다. 특히, 무용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분야의 많은 예술인들은 분야의 특성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경력과 전문능력을 갖추어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업적 측면에서는 그 폭이 좁고 불안정하여 참으로 고민이 많았고 여전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홀로추는 춤. 저자는 홀로 춤을 추면 더 진하고, 더 강하고, 더 자유로워졌다(책, p.7)고 한다.

특별하지 않고 새로운거 없는 이 책 속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춤춰온, 춤추고 있는 아름다운 춤꾼들이 좁디 좁은 삶의 길에서 그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음 좋겠다.

무엇을 할지,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 ■ 참고문헌

---

바바라 메틀러(1985). **무용예술**(육완순 역). 도서출판 금광. (원저출판 n.d.).

오종우(2015). **예술수업**. 어크로스.

최중엽(2021). **오십에 읽는 논어**. 유노북스.